광주·전남 '이주배경인구 15만명'…지역 인구구조 다변화

국가데이터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영암 전체 인구 대비 21% '전국 최고'

완도·진도 13% 이상 전국 상위권 기록

전체 이주배경인구 57% 수도권 거주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이주배경인구가 1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광주·전남의 이주배경인구는 총 15만 4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남은 9만9천546명으로 광주(5만864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전남 이주배경인구 중 귀화·인지자, 이민자 2세 등 내국인은 2만8천610명, 외국인은 7만936명으로 전체 이주배경인구의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전남 전체 인구는 178만9천610명으로 이중 이주배경인구는 5.6%였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이번 통계는 외국인을 넘어 귀화·인지자, 이민자 2세 등 내국인까지 포함됐다.

특히 영암군의 이주배경인구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실제 영암군 총인구 6만명 가운데 1만3천명이 이주배경인구로 확인돼 전체 대비 21.1%에 달했다.

완도군 역시 총인구 4만8천명 중 7천명이 이주배경인구로 14.1%로 전국 7위에 올랐고 진도군도 총인구 2만9천명 중 4천명(13.3%)을 기록하며 전국 9위로 확인됐다.

광주에는 총 5만864명의 이주배경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내국인은 1만4천982명, 외국인은 3만5천882명으로 전국 비중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광주 인구(140만9천624명)의 3.6%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천명으로 총인구(5천180만6천명)의 5.2%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3만4천명(5.2%)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총인구 증가율(0.1%)을 크게 웃돌았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204만3천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귀화·인지·이민자 2세 등 내국인은 67만2천명(24.8%)이었다.

지역별로는 국내 이주배경인구의 56.8%(154만2천명)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경기 안산·화성·시흥 순으로 규모가 컸다. 전체 229개 지역 가운데 17개 지역은 총 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증가와 더불어 이들이 귀화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이주배경인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최근 고용허가제 확대가 취업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는 기존 행정안전부 통계보다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사할린 동포 등 본인이나 부모가 국적 판정을 받은 사람, 해방 이후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과 그 자녀까지 포함했으며 외국인 주민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전 연령대로 조정해 보다 포괄적인 통계로 정비됐다. /안태호 기자

GICON, 'ATF 2025'서 광주콘텐츠 우수성 입증

지역 유망 기업 8개사 참여

글로벌 시장 진출 '청신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최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엑스포 앤 컨벤션에서 개최된 'ATF 2025'에 참가해 광주 공동관을 운영했다. 사진은 스튜디오팝콘과 AGOGO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모습. 〈GICON 제공〉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8일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엑스포 앤 컨벤션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규모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 'ATF 2025(Asia TV Forum & Market)'에 참가해 광주 공동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콘텐츠 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지역 우수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판로를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GICON은 행사 기간 동안 'GICON 공동관(GICON Pavilion)'을 운영하며 광주 기업들의 애니메이션, 영화, VFX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공동관에는 ▲5브릭스 ▲어쩌다 필름 ▲마로스튜디오 ▲엠엠허브 ▲핑고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버튼 ▲스튜디오팝콘 ▲울트라그린 등 총 8개사가 참가해 활발한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 2일 차인 4일 오전에는 'GICON 비즈니스 쇼케이스 2025(GICON Business Showcase 2025)'가 개최돼 현지의 산업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Sony Pictures Entertainment 등 글로벌 주요 미디어 기업들이 참석해 광주 기업들의 피칭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피드백을 제공했다.

참가 기업들은 이번 쇼케이스와 공동관 운영을 통해 총 120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1억2천6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광주지역 콘텐츠의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참가사인 스튜디오버튼은 현장에서 LNL VFX와 3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스튜디오팝콘은 AGOGO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참가 기업들은 행사 기간 중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미디어 허브인 '인피니트 스튜디오(Infinite Studios)'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슈퍼픽셀(Superpixel Animation Studio)'을 방문했다. 기업들은 현지 제작 환경을 직접보고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이번 ATF 2025 참가는 광주 콘텐츠 기업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 안전수칙
지붕 추락사고 핵심 예방 대책
하나! 작업 중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둘! 취약한 지붕재 위 덮개 또는 발판 설치
셋! 덮개 또는 발판 설치 곤란 시,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농어촌公, 창립 117주년 맞아 'KRC 비전 데이'

성장·구조·신뢰 3대 축으로 재도약 다짐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창립 117주년을 맞아 새로운 청사진인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위한 전사적 도약을 선언했다.

공사는 8일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7주년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KRC 비전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인중 사장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강조하고 경영혁신 방향 수립에 힘을 기울여 왔다. 혁신 전담 조직인 '경영혁신기획단'을 구성해 국정과제와 경영현황을 면밀히 분석·진단하고, 농어민 등 정책 고객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김인중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한 공사의 비전과 변화 방향인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이날 'KRC 비전 데이'를 통해 선포했다.

공사는 혁신을 위한 'KRC Re:Action 프로젝트'의 3대 축으로 ▲성장동력 재충전 ▲경영구조 재설계 ▲고객신뢰 재회복을 제시했다.

김인중 사장은 "공사는 지난 117년간 농어촌과 함께 성장해 온 저력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KRC 비전 데이'를 계기로 미래세대의 감각과 조직의 실행 역량을 결집해 변화와 혁신을 일상으로 만드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신세계, 크리스마스 케이크 선봬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는 8일 백화점 본관 지하 1층 노티드 매장에서 직원이 케이크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노티드는 연말을 맞아 카카오로 케이크 구매를 사전 예약한 고객들에게 15% 할인하는 행사를 17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